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하며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죽음을 초월한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다(5)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가 열려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권능의 손수건으로 고향 마을을 변화시킨 인도 모티 집사와 하나님을 만나 참된 축복의 비결을 깨달은 양우용 장로의 간증.

# 만민뉴스

제905호 2019년 9월 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어려울 때, 교회에서 큰 힘과 위로를 주셨어요”

1982년 교회 개척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각색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권능의 기도로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다.

특히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성도가 없도록 구제위원회 장학부를 통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형편을 살펴 각종 레슨비, 학원비, 교통비, 문화상품권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으로부터 학원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하기 어려운 가정 형편임을 아시고 구제해 주셨지요. 현재 실용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배우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연합회장 김보석 형제(19)의 고백이다.

지난 8월 18일 주일 저녁예배 시에는 초등학교 11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32명 총 73명에게 2019년도 3/4분기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

###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제가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행복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 주셨고,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고자 해외에서 많은 손님이 왔는데,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 같았고 한 가족임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민의 사역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고, 무수한 간증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 4:48)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성결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요. 성결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성결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는 만민과 함께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지원 덕분에 저희 러시아에서는 센터들이 세워졌고, 선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만민은 계속 발전해 갈 것이며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를 세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서미자 집사(여, 52)는 “당회장님의 기도로 빈혈과 두통, 우울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생활비, 쌀, 밀반찬까지 챙겨 주셔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지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다닌 만딸은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라고 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온 버지니아 집사(여, 46)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직업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구제해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재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예배 시 불어 통역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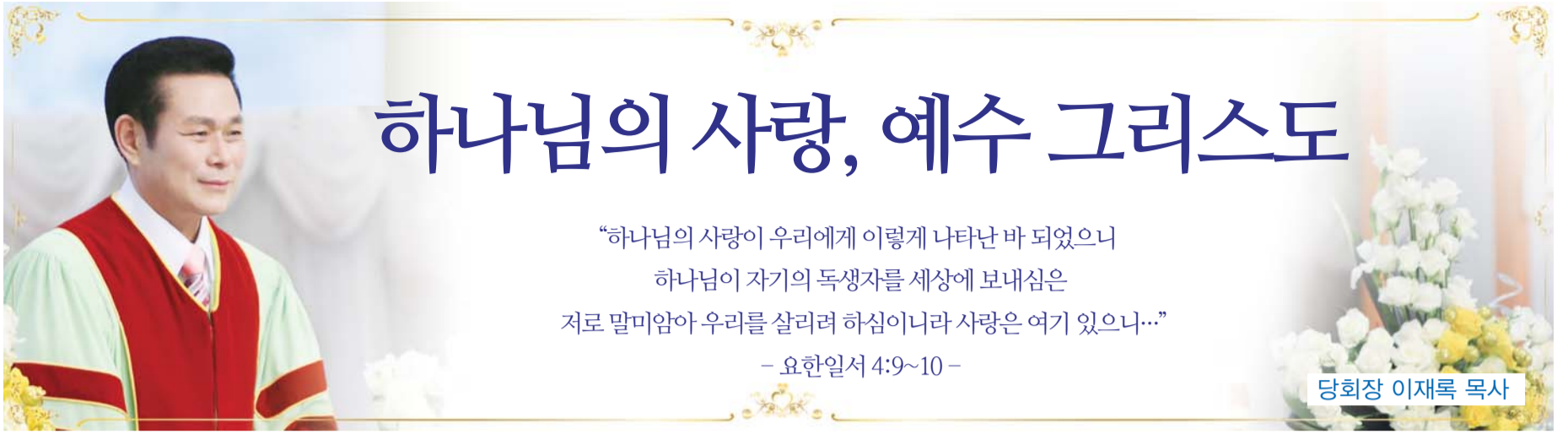
열 살 때 아버지가 빛을 많이 남기고 사망해 절망 가운데 빠졌던 최호현 형제(27)도 매월 교회에서 생활비와 쌀, 반찬을 지원받으며 어려운 시간을 넘겼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게 꼭 필요한 노트북까지 지원받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민의 양 떼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구제하는데 힘써왔다. 교회 내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생활보조비 및 쌀과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전반기부터 진행된 치과 치료비 구제를 통해서 연로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생하는 174명의 성도들에게 임플란트, 크라운, 틀니 등을 지원해 주었다.

이 외에도 주민센터 등 관공서 5곳과 복지관 2곳에도 매월 쌀 70포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경조위원회의 장례 지원, 교정복지 선교회의 재소자들 섬김, 미용인선교회의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 요한일서 4:9~10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죄인 된 인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만세 전에 독생자를 예비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하나님

첫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말씀대로 원수 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인 된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첫 사람 아담을 생령으로 지으시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창설하여 그곳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도록 배려하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생령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게 되었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니 대신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아담의 후손들도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 온갖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을 맛보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섭리입니다. 곧 만세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셨다가 때가 이르러 세상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요 3:16).

## 2.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보내 주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존귀와 위엄을 갖추고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면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전 12:13).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불법이 성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서로 속이고 미워하며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분을 벗어나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짐승의 우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의 참된 양식이 되시기 위해(요 6:51)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의 본분을 찾게 해 주시기 위함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한 길을 가셨습니다. 때로 주무실 곳이 없어 몸을 들에 누이시며 잠수실 것이 없어 주리기도 하셨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오천 명을 먹이시는 등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가난하고 험벗은 길을 가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 3.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각색 질병을 치료하는 등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

데 그 대상은 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나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이라 정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잠 3:34 ; 마 19:14).

또한 각색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아무런 희망 없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살아가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매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으며,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기도 하셨습니다(눅 7:11~15).

뿐만 아니라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시고 세리와 죄인들같이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지요.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2~13) 하시며 인생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알려 주셨지요.

양 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혹 저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요(사 49:15).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목숨까지 내어 주신 사랑, 곧 죽음을 초월한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실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4.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은 죄인을 살려 주시는 사랑이요,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월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돌아가고 여인만 남게 되자 예수님께서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지요. 죄로 인한 수치감과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리가 되고 감동이 되었을까요?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알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는 죄

악 가운데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부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켜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길이 참고 기다리시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 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빛 가운데 행함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 9 >>>

##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다(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 \*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이재록 목사는 2007년 7월 23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울을 떠나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한 날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연합대성회를 이룬 2009년 9월 7일까지 총 777일간의 사역을 마쳤다(위 사진).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주최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인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36개국 기독교 언론 대표자들과 정계, 재계 여러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2009년 9월 6일 오후 6시 30분, 올렉 하진 목사(크리스탈포럼 총무)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올랐으며 힐릭 바르 예루살렘 시 외무관광부장관과 노아즈 바르니르 관광부 수석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만민중앙교회 공연팀의 화려한 부채춤을 시작으로 30분가량 찬양과 워십이 이어졌다. 불같은 성령의 열기와 감동함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가 단상 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 \* 첫째 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

유일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참석자들은 연신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재록 목사가 설교 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부터는 곳곳에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령 충만한 환자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단 위에 간증하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로 붐볐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현지 이스라엘 언론을 비롯해 AFP, 로이터 등 세계 여러 언론 매체가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소식을 보도했다. 국내 기독교계의 언론인들도 참석해 권능의 현장을 목도했으며, 국내외 교계 및 기독교 언론에도 보도되어 기독교계의 큰 이슈가 되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 TV를 시청하던 사람들 중에도 치료 역사를 체험하여 전화로 간증하는 등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다.

### \* 둘째 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선포

2009년 9월 7일은 전 세계 언론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현장에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당시 세계기독교방송연합회(NRB) 회장 프랭크 라잇, 러시아 대통령 자문위원 피터 웰리쉬가 축사를 담당했으며, 특히 러시아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강사 이재록 목사는 성회 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후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담대히 선포했다. 이날은 성회 첫째 날보다 더 많은 치료의 간증이 쏟아져 나왔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지팡이를 버리며, 안경을 벗고 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등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하는 소리가 늦은 시간까지 국제 컨벤션센터에 울려 퍼졌다.

### \* 전 세계 220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의 오랜 가뭄을 해결한 성회

예루살렘에서 이틀간 열린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GCN, CNL, TBN 러시아, 엔라씨 등 28개 방송사에서 생중계하고, 미국 데이스타 등 5개 방송사의 녹화 방송으로 전 세계 220개국에 송출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가뭄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므로 강사 이재록 목사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를 위해 기도했으며, 성회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비를 내려 달라고 간구했다.

그러자 성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비가 내렸으며, 이후 건기인 9월에는 비가 올 수 없다는 상식을 깨고 며칠 간격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에 실렸으며, 인터넷과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



**모티 찬드 집사 (40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저는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곤 했지요. 그런데 델리만민 교회에 출석하면서 화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허리 통증을 치료받아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뒤 모든 삶이 변화된 것처럼 고향 사람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타프라데시 주 '고락 푸르'라는 농촌 오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듣지도 못한 곳이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였지요.

그러던 2018년 5월,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친척 집에 온 축하객들에게는 물론 여러 가정을 방문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 주면서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었지요.

그러자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마(35)라는 여성은 왼쪽 편마비로 혼자서는 걸을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는데,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니 걷기 시작했고 왼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앙쿠쉬(3)라는 남자아이도 기도받은 뒤 걷게 되었지요. 이 외에도 각종 통증이 사라졌다고 많은 사람이 간증하니 이를 본 사람들은 너도나도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가정은 고향으로 이사회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곳에 교회는 없지만, 마을 사람들이 매주 모여 유튜브 'GCNTV HINDI' 채널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의 예배를 드리며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도 함께했지요.

예전에는 우상을 극진히 섬겼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 여러 문제로 고통 받았던 마을 사람들이 당회장님의 환자기도 영상과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치료 뿐 아니라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제 조카 아니타는 1년 전부터 귀신 들려 고통을 받았는데, 'GCNTV HINDI'를 통해 당회장님 설교를 들으며 우상 숭배 등 그동안 행한 죄들을 회개하고 손수건 기도를 받았더니 성령의 불이 임해 귀신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학교도 다니고 가정도 행복을 되찾았지요.

또 마니쉬는 머리 종기를, 로시니는 백대하를, 프라부는 치질을, 장바하두르는 열병을 치료받고 두르기와티는 순산의 축복을 받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받아 축복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양우용 장로 (71세, 1대대 5교구)**

저는 아내의 끈질긴 전도 끝에 1992년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신앙생활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던 터라 간신히 주일 오전예배만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단에서만 기도해 주시는데도 견지 못하던 이가 견게 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깨우치며 죄송해서 눈물만 나왔지요. 이후 온전한 주일 성수는 물론 사명도 맡아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실업인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에 참석해 연인원 300만 명이

모인 엄청난 인파와 수많은 사람이 질병을 치료 받는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이 굳건해졌지요.

그러던 2004년 6월경이었습니다.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중수돌기염'이라며 의사는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니 바로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회장님께 나아가 당시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을 날려 십일조 현금조차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를 받았 습니다. 기도 끝에 "아멘" 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지요. 다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검진을 통해 깨끗이 치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 시기에 권능을 구하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당회장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도 경영'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밑바닥부터 차분히 시작하였고, 어떠한 편법도 용납 하지 않고 경영하니 최악의 상태에서 사업터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도울 사람을 보내 주셔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 주시는 등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터에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큰 축복은 일흔이 넘는 나이에든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내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는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지켜 주셔서 수련회 체육대회 때마다 저와 함께 공 굴리기 선수로 출전한 지 벌써 7년째이지요.

인생 말년을 건강하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천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사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2213-207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3430-3312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